

* 다음은 2월 27일 오전 10시 경북대학교에서
각국 대표들이 발표한 글이다.

개회를 여는 말씀

일본

1. 1995년은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과연 전쟁은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전쟁은 할머니들의 가슴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분노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2. 지금 이자리에는 하코다테 언덕에서 '어머니'를 부르며 자살한 어린 소녀들, 중극, 남양군도, 필리핀, 대만등으로 끌려다니다가 죽은 수 많은 영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3.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들의 투쟁,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과 평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정열과 양심들의 연대입니다.

대만

4. 우리들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인권의 낙후지대인 아시아에 정의를 심을 것이며, 전쟁으로부터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